

투데이 칼럼

경차 앞에 선 두 남자

같은 직장에 다니는 박과 강은
뜻밖에도 중고차 영업소의 작은
경차 앞에서 마주쳤다. 그는
달맞이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의 시선은
목욕탕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는 것만큼이나
어색하고 얼굴 화끈거리는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열린 표정을 바꾸고
어색한 웃음으로 서로를 보며 아는
체했다. 어쨌든 둘은 직장동료니까.
사내에서 두 사람은 대놓고 서로에게
살은 감정을 들어내지는 않으면서도
포시나지 않게 은근히 사시(邪視)를
뜨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과 강은
교통수단에 대해 대척점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박은 이동수단으로써의 합리성과 실
용성을 중시하며, 도보와 버스, 자전거를
애용했다. 반면 누구나 그렇듯 강은
승용차를 이용했다. 강은 차를 이동수단
이상의 상징으로 여겼다. 단순한 편리
함을 넘어, 자신의 존재와 사회적 위
치를 드러내는 도구로써 자동차를 사
랐었다.

문제는 강이 자신의 실패살이 수준보
다 한참 더 상급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있다. 박은 당연히 그 허세가
못마땅했다. 강 또한 박이 대중교통과
도보를 고집하는 팔까발이 같은 완고
함과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동이 마음
에 들지 않았다.

박은 시내버스 안에서 종종 승용차가
뺨뺨하게 있대어 서 있는 도로를 보며
속이 답답해지곤 했다. 도로를 점령한
'니홀로 운전' 차량들 때문이다.
사람 신체보다 몇십 배는 더 부피를
차용하는 승용차가 느릿느릿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무슨 그리 존귀한 일들을
위해 급속과 플러스틱으로 합체된 기

계들을 끌고 나와 좁디좁은 도로를 점
령하고 있는지 싫은 것이다.
버스와 자전거, 그리고 자신의 두 발
이면 충분히 달을 거리를 굳이 부피가
사람보다 훨씬 거대한 승용차를 이용
하여 이동해야만 하는 것인가? 때로는
단순히 이동 목적만으로 거대한 기계
들을 끌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 일
만나 방만한 소비이며 환경오염인가.
필요 이상의 자원 낭비, 허영심이 담긴
과시, 도로 위에 넘실거리는 자기중심
적 행동들이 박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
드는 것이다.

강에게 승용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상징
이며,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장치다.
고급차의 문을 열고 차에 오를 때 느
껴지는 타인들의 시선과 드라이브할
때 나르시스에 빠져 느끼는 일종의 우
월감 같은 심리적 행복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강은 무심코, 자신보다
낮은 급의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시선까지
가지게 되는 것에 적잖이 당황한다.
고급차의 행복감은 결코 공짜로 주어
지지 않았다. 마냥 강의 마음을 행복의

열기구에 타고 있게만 하지는 않는다.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부금, 세금,
연료비, 보험료, 수리비 등 끊임없는
비용 부담이 뒤따른다.
강은 우월함과 부딪 사이에서 아슬아
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도, 차를 출발
시킬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자신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박 또한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이 마
냥 웃음꽃을 피우게만 하는 것은 아니
다.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가끔 밀
려두는 짜증을 어쩔 수 없다.

정시보다 먼저 출발해야했거나 늦게
도착하는 배차시간, 운전기사 마음대
로 틀어대는 시끄러운 방송, 난폭 운전
등 소소한 불편함이 박의 이맛살을 왕
창 구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근히 경차를 하나 소유하고
싶다는 욕구가 고개를 들이미는 것을
박도 막을 수 없었다.

한 모델의 중형 고급차가 가져다주는
만족감을 강은 오래 만족하지 못한다.
매번 그랬다. 좋은 모델의 중형 고급차
를 타고 있다는 생각은 잠시다.
눈을 들어 도로를 살펴보면 곧 강 자신
이 타고 있던 차보다 훨씬 더 급이 높
은 차들이 강의 차를 앞질러 가는 것
이다.

야 저 차 괜찮은데! 하는 마음이 강
의 심중에 파고들면 당장 자신이 타고
있는 차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
다. 도돌이표처럼 차를 바꿀 때마다 강
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동안 몇
대를 그렇게 체인지 했던가.

차를 교체할 때마다 할부금은 더 늘
어만 갔다.
언제까지 할부금을 감당할 것인가.
이제 서서히 지쳐간다. 남들 앞에서 우
쭐해 하는 비용치고는 너무 과했다. 스
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면서 멍청한 짓
을 반복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드는 것
이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차는 이동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사람들의
웃차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너무 화려
한 옷보다는 검소하면서도 단정한 옷
차림이 호감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
서 과감하게 결정했다. 고급 중형차를
버리고 소형차로 갈아타기로.

어색한 표정과 몸짓으로 소형차를 돌
려보면서 박과 강은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이동수단
때문에 겪었던 불편함을 털어놓기 시
작했다.

박은 강이 중형차를 버리고 소형차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강의 눈앞에 엄지
를 세우고 웃으며 탁월한 선택을 했다
고 추켜세웠다. 그동안 알미운 시선으
로 강을 봤던 게 슬쩍 미안해졌다.

박과 강은 본격적으로 구입할 소형차
를 품평하며 살펴보기 시작했다. 경쟁
자 같은 두 사람은 작은 차 앞에서 묘
한 공감대를 만들었다. 결국 이동수단
은 허세도, 완고함도 아닌, 자신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는 문제였다. 그렇게
경차 앞에 선 두 남자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하면 즉시 폐기하고 배터리는 40℃ 이하
전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피가 생명을 구
한다.

아파트 화재 시에는 '불나면 살피서 대
피 원칙'을 따라야 한다. 무작정 뛰쳐나
가기보다는 상황을 판단한 후 안전한 대
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출입문 손잡이
의 열기와 문틀 연기부터 먼저 확인하자.
이때, 복도 연기가 짙다면 문틀을 엮은
수전으로 막은 뒤, 119에 신고한다. 대피
가 가능하다면, 계단으로 이동하되 엘리
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대피 시에는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
로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필수다.



소 중 한

전주덕진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장

현관 인근 등 피난통로에서의 충전을 금
지하며, 충전 완료 즉시 분리하고 정품
(KC)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배터리
팽창·변색·이상 냄새·이상음을 발견

사설

하늘을 나는 자동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
로 다가왔다. 최근 미국에선 4
억 원이 넘는 고가에도 '하늘
을 나는 자동차'의 사전 예약
관매가 3000대를 넘어섰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동
차·항공 제조 스타트업 '알레
프 에어로노틱스'가 최근 캘리
포니아의 홀리스터 공항, 하프
문베이 공항과 협약을 맺고 비
행자동차 '모델 A'의 시험비
행을 시작했다.

전기 비행자동차가 시험운행
에 나선 건 세계 최초다. 모델
A는 도로 주행과 수직 이착륙
이 모두 가능한 순수 전기차로
전 방향 비행이 가능해 도심
건물이나 산악 지형 등 장애물
을 피하지 않고 곧바로 목적지
까지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조종석에는 특수 장치가
탑재돼 있어 기체가 기울어도
운전자와 탑승객이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상에서는 약 320km 주행할

수 있고 비행은 170km 이동할
수 있다.

미국 연방 규정상 모델 A는
초경량 항공기로 분류돼 있어
별도의 비행 인증 절차를 받지
않고도 운항할 수 있다.

다만 규제에 따라 낮 시간대
만 비행할 수 있고 도심 및 인
구 밀집 지역 상공은 비행할
수 없다.

알레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
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차
량 가격은 약 30만 달러(약 4
억170만원)다. 알레프는 연내
모델 A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
며 이후 제품 배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델 A는 자동차를 기존 항
공 인프라와 교통 체계 속에
통합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다.
전기 항공은 친환경적이고 소
음이 적은 데다 공간 활용성도
높아 향후 더 많은 공항이 전
기 항공기를 수용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 편차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
아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가격
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비가 의료기관별로 수십 배에
서 수천 배까지 차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당국은 최근 의료
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
를 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전
체 의료 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
어 조사된 항목 571개 중 367
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
됐다.

도수치료는 최저가가 300원,
최고가는 30만원으로 1000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쓰이는
체외충격파는 최저가가 0원,
최고가는 31만9000원이었다.
한의원에서 염좌나 관절 통증
치료에 두루 쓰이는 약침술(경

혈)도 최저가 0원, 최고가는 9
만7000원으로 차이가 났다.

임플란트 치아 1개 기준 최저
가는 30만원, 최고가는 46만
원이었다. 보철 재료인 '지르
코니아 임플란트' 최저가는 30
만원, 최고가는 384만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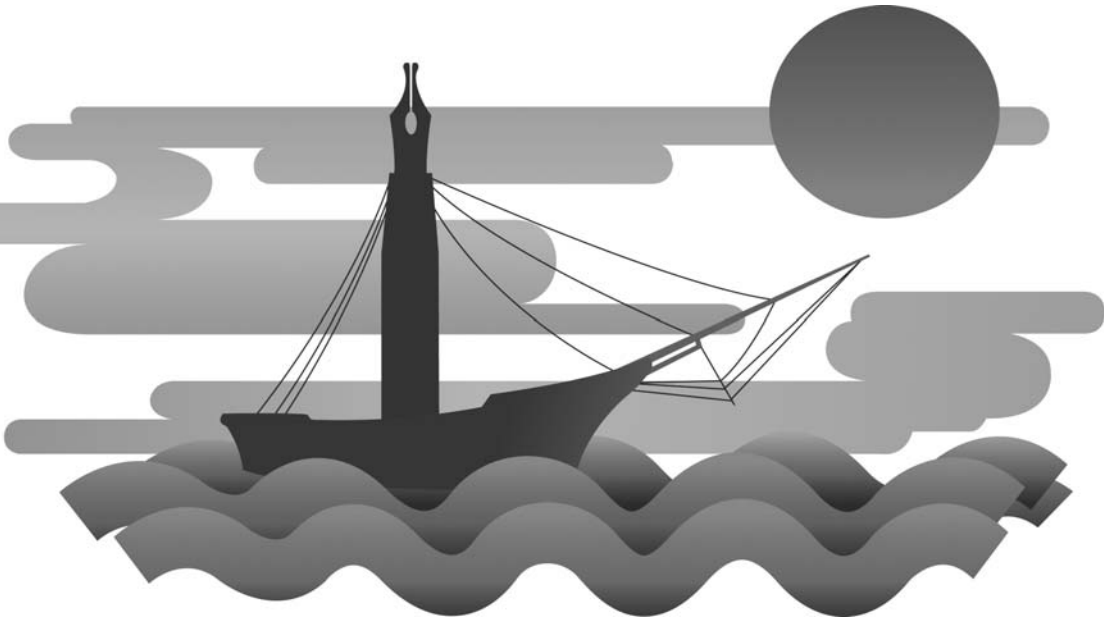
올해 새로 공개된 비급여 항
목 중 백내장 수술에는 사
임프로그 사진 촬영 검사는 최
저가가 5000원인데 최고가는
200만원이었다.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비급여
진료 시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붙이는 혼합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통
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급여 지정 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에서, 95%를 본
인이 부담토록 해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도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